

HDPE, 사출용-타포린 엇갈리는 운명!

경기침체로 재고 늘면 오히려 호황 ...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이익 감소

2003년 8월 경기침체에 따라 사출용 HDPE(High-Density Polyethylene)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HDPE 시장에서 2003년 들어 2가지 특이한 사항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HDPE 타포린용은 SARS 여파로 수출이 부진했던 3-4월에 미국-이라크 전쟁의 전쟁복구 물자로 사용돼 오히려 수출이 늘어 가격이 상승했으며, 6월 이후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갔다. 반면, 사출용 HDPE는 2003년 7-8월 내수경기 위축에 따라 호황을 맞고 있다.

Pallet와 크레이트 등 주로 대형 유통기업에서 재고제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사출용 HDPE는 시장이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2002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제품 재고가 줄면서 불황을 겪었었다.

HDPE는 필름용, 사출용, 중공성형, 압출용, 파이프용 등으로 분류하는데 최근 사출용을 제외한 필름용, 파이프용, 압출용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적정가격에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또 원재료인 Ethylene 및 Naphtha 가격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현재 HDPE 생산기업들은 마진이 남지 않는 상태이다.

국내 HDPE 생산기업으로는 대한유화, 대림산업, 호남석유화학, LG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SK, 삼성Atofina가 있으며 삼성Atofina, 호남석유화학, SK는 세계적인 Mitsui Chemicals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공법을 사용한 제품보다 평균 2만원 높게 거래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9/04>